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⑧ 차와 코로나19

뜨거운 물 · 영양차 '면역증진' 도움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차 중 하나인 구기자차.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
'생명윤리관' 인식 재발 막아야

'면역력' 키워 제2의 코로나 대비
뜨거운 물 · 영양차 수시로 마셔

호모사피언스인 인간은 유일한 지구의 독재자로서 오랫동안 군림해 왔다. 38억 년 전부터 3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별에는 1000억 개의 관측 가능한 우주 동식물 800만 종과 개체수와 종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생명체가 공존해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체생명체인 유정, 무정. 태란습화의 사생과 육도 삼계 25류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중생들로 구성되어 눈에 보이는 큰 중생.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X에 대해 인간의 수명과 건강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받고 있다.

사람들은 잔혹한 인류의 변화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다. 인간만이 우성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지배욕과 동식물에 대한 정복의 욕구를 생태계에서도 이제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상은 결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는 강자와 약자, 약육강식의 생태원리로만 돌아가지 않음을 전 세계가 지금 실감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는 새롭고도 놀라운 생명체들이 공생하며 존재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의 법칙이 수시로 가동하고 있다.

동물을 작은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고 길들여 생명을 쉽게 도축하며 일회용 생산용품처럼 가벼이 여겼던 인간욕심이 자본의 원리로 생각하고 경시하며 동물을 사육했던 생각도 이제는 무참히 버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

동물을 가볍게 살생하며 무자비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발생한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 바이러스를 통한 숙주 세균 등이 자본의 팽창화속에 인구의 증가. 산업화 78억 인구집중화 되었던 고통이 시작되어 너무도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지금의 상황에 지난 인류의 삶과 각자의 삶을 되돌아 볼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동식물 너나 할 수 없이 편안히 공기를 서로 나누며 호흡했던 삶의 공간에서 숙주 없이 살 수없는 무생물과 무성생식을 통해 유생물 단백질과 유전물질 머리카락 직경보다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이제는 진실로 겸허히 수없이 많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하며 과잉의 살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감을 참회해야 한다. 그동안 세균들은 독립된 세포, 생존과 번식을 했다. 그러나 지금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단독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없다. 숙주를 매개체로 증식을 통해 기침 콧물 눈물 호흡만 같이 해도 감염이 된다.

바이러스는 인수공통감염이라서 이제는 어디에도 안전하게 편안히 호흡을 하기 어렵다. 바이러스 수용체 열쇠가 있다. 변이를 통해 변이를 또 일으킨다. 바이러스 결합력이 떨어진다.

박쥐바이러스 aec2와 결합 스필오버니바 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에볼라. 수많은 변이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인류를 지키는 일이며 생태계에 생명 경시로 인해 수많은 인류는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로 인해 더 두려워지며 현재와 미래 바이러스에 대처법은 생명윤리관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일상의 면역 대처법으로는 스스로 뜨거운 물과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영양 많은 차를 수시로 마셔야 한다. 그리고 자주 염도 있는 소금물로 입안을 깨끗이 하여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는 꼭 물을 끓여 마실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따뜻한 차는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마음과 정신의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해소기능이 뛰어나다. 커피는 3차에 걸친 로스팅을 통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특히나 우리의 몸의 냉병과 저체온으로 인한 위장장애 불임,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호흡기 면역력이 강조되는 시기에 일차 호흡기관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먹고 마시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할 때이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⑧ 세계 2위 소금 수입국 대한민국

한국 심층수 소금 경쟁력 충분해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가 아니면 소금에 있어 그리 큰 곤란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왔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축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국가에서는 과거 소금의 생산과 공급을 둘러싸고 수탈, 민란과 혁명이 끊이지 않았다.

소금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목숨 줄과 같은 것이었기에 위정자들이 수탈의 한 방편으로 소금 전매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소금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죽음에 이르렀고, 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처형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사막에서의 소금 대상 행렬, 티베트에서의 마방에 의한 소금 공급 길을 보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먼 길을 거쳐 어렵게 공급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천일염과 정제염이 소금 생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하는 소금이라고 해봐야 연간 50만t 내외로 우리나라가 연간 필요로 하는 소금 300만t의 1/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소금은 수입소금이다. 수입된 250만t은 대부분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식품 공업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 멕시코와 호주에서 수입되며, 중국 등 일부 아시아권에서 일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수입되는 소금은 대부분이 천일염이다. 호주와 멕시코의 드넓은 사막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천일염을 대량 수입해서 화학공업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드넓은 사막은 무한정 내리쬐는 햇빛과 비가 오지 않는 최적의 기후로 인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소금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세계적인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 돌 소금 염전(갯벌이 없는 제주도는 돌 위에서 소금 제조)

한국이 소금 수입 세계 2위이고, 세계 1위의 소금 수입국은 일본이다. 일본은 연간 800만t 정도의 소금을 수입한다. 국내산은 150만t 정도로 소비량의 15% 정도를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토의 3면이 바다이고 다양한 소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소금을 그렇게 많이 수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천일염이었는데 그 천일염이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없애 버리고 있다. 2005년까지는 가지고 있던 염전을 포기하는 소금 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억지로 없애버리려고 했다. 현재는 태양광 시설이 염전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 드넓은 염전이 태양광 패널로 덥혀 사라지는 현질은 참으로 안타깝다. 심지어는 생산된 천일염은 이물질이 많다는 이유로 2008년까지 광물로 구분하여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소금 산업은 점점 열악해졌고 시설 현대화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 틈을 비집고 서구의 고급 소금과 값싼 소금들이 소금 수입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로 밀려들어 왔고, 급기야 9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저급시장은 물론 고급시장 또한 그 자리를 수입소금에 내어주었다.

한국은 소금 수입을 하는 와중에도 소금을 조금씩 수출해왔다. 구운 소금, 죽염 등이 그 예이다. 독특한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질 좋은 소금은 세계 어디에도 통용이 되기 때문이다.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요즈음 깨끗한 해양심층수로 만든 소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심층수 소금은 생산하는 나라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관련 생산 설비와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자립도 가능하다. 해양심층수가 가진 청정성과 미네랄 특성을 잘 살린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 판매를 한다면 건강 소금으로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소금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천일염전을 가지고 있고 구운 소금, 죽염 같은 한국만의 독특한 소금 제조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아직 초보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세계 제1의 소금 수입국인 일본이 이웃나라이고,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시장이 옆에 있다. 중국 소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으므로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수출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소금 시장인 중국 시장은 한국 소금이 진출할 수 있는 최대 시장이고 중국에 없는 심층수 소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예상된다.

한국 소금이 세계 시장에서 올바르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소금의 제조과정과 품질과 미네랄 성분 함량을 분명히 하고 한국 소금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어떠한 특성과 효능이 있는지를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 높은 품질의 소금에 멋진 제조 이야기를 담아나간다면 승산이 충분이 있다. 한국은 세계 2위 소금 수입국에서 고급소금의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주)오씨아드 이사〉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자비의 등불
함안 미륵산 용 화 사
회주 무 불



천상의 향기 캄보디아 침향



❶ 8mm 1벌 10만원 (10벌이상 5만원)
❷ 10mm 1벌 15만원 (10벌이상 10만원)

침향 구입문의 : 010-2033-6636 / 055)584-0998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사) 대한불교 법화종
북한산 무 량 사
(전통사찰 경기등록 제1호)
주 지 무 량
신도회장 송순남 사무총장 정보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84(북한동)
전화 02)385-7777, 351-3789